

'2024 임실N펫스타' 개최

임실군, 5월 4일~6일까지 반려동물 패션쇼·토크쇼·박람회 등 프로그램 기획

오는 5월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축제인 '2024 임실N펫스타'가 오수 의견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의견문화재단지원위원회(위원장 박세근)와 함께 오수 의견공원 일원에서 '제39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펫스타'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는 팀을 심사할 예정이고, 축하공연에는 이찬원, 장민호, 양지원, 오로라, 김의영 등이 출연하여 임실N펫스타를 축하해 줄 예정이다. 반려동물 토크쇼에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현욱 대표와 이용종 교수, 설재현 수의사, 나은식 고양이 수의사를 초청하여 반려동물 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임실N치즈, 한우판매관, 농특산물 및 14개의 반려동물 산업용품 업체가 입점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임실치즈피자, 한우구이, 치즈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은 공공 반려동물 장묘 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문화시설인 펫카페, 목욕탕, 반려문화 전시실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작년에 건립했다.

또한, 반려동물 다목적 공원, 세계명견과 함께 교육·체험·관광 기능이 복합된 반려동물 관련 미래산업을 선도할 세계명견데마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성지,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확대

순창군, 최대 1080만원 혜택... 연령 49세까지 확대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와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광복 행보를 이어간다.

특히 지난해 1학기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대학생생활지원금과, 2세~17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의 지급 정책을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지원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복지도시 순창이라는 타이틀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배를 지원해 2년 뒤 종자돈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영일 군수가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지원확대를 위한 기나긴 협의 속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

년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매월 5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과 전복은행이 제공하는 은행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을 140% 이하(3인가구 기준 6,209,000원)에서 150% 이하(3인가구 기준 6,653,000원)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62, 158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조건과 기준은 순창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잠시 머물 곳이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무인민원발급기 21곳으로 확대 운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확대

남원시는 지난 26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약칭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7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법원 등기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등 등기부등본 발급 권한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은 멀리 발걸음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남원시는 시청 민원실을 비롯하여 28개소 29대의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부동산 등기부등본(현금 1,000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연 무료로 운영하

고 있으며, 그중 19대를 근무시간 외 연장 운영 중이며, 이번 발급 확대로 14개소 행정복지센터가 추가되어 남원시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원시 권혜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덕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임실군이 최근 덕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및 세부설계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임실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주민위원회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

눴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증축 및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생활 서비스 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28억을 포함, 총 4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증축, 야외공간 정비로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준공 후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지난 4월 2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대학 및 남원 글로벌 캠퍼스의 새로운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전북대 글로벌대학·남원 글로벌캠퍼스 비전 선포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지난 4월 2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대학 및 남원 글로벌 캠퍼스의 새로운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과 최경식 남원시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및 교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비전 선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를 전국에서 오고 싶은 대학, 전 세계에서 오고 싶은 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남원캠퍼스 설립에 서남대 캠퍼스 재생을 통한 폐교 활용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제시할 계획 및 이곳에 K-컬처, K-커머스, K-테크 등의 외국인 전용 학과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해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어학당을 만들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남원의 특화산업인 관소리나 코스메틱, 전통목기, 드론산업 등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도 조성, 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자정 결의

남원시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간부공무원 60여명이 청렴 자정 결의문에 서명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 서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의문에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바탕의 특혜 제공 배제 △이권개입 및 청탁의 금지 등 공정한 업무처리 △공품·향응·편의 등 수수 및 요구 금지 △상호존중·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최근 남원시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간담회 등을 통한 구성원 의견 청취 및 개선안 제도화, △실용적인 반부패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개선, △지속적인 청렴활동 추진 및 홍보를 통한 청렴의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관촌·덕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임실군이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관촌면 관촌리 1,236필지 57만7,288.1㎡의 토지와 덕치리 204필지 6만 3,904.7㎡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관촌·덕치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할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13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지적불부합 및 경계분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촌·덕치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